

개인과 공동체의 웰빙을 추구하는 지리수업: 삶을 위한 학교 만들기

個人と共同体のウェルビーイングを追求する地理授業：ライフのための学校づくり

채나미(충북 동성고등학교 지리 교사)

チェ・ナミ (忠清北道 ドンソン高等学校 地理教員)

키워드: 지역의 지속가능성, 개인과 공동체의 웰빙, 웰빙 지리교육

キーワード：地域の持続可能性, 個人と共同体のウェルビーイング, ウェルビーイング地理教育

OECD(2018)은 '웰빙(Well-being)'을 지역사회의 구성원들의 행복과 건강, 환경을 생각하는 행동계획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지역사회의 변화가 웰빙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 모든 학생들은 전인적 성장을 바탕으로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하고 개인 뿐만 아니라 공동체 및 지구의 웰빙에 기반한 공동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데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웰빙이라는 개념은 필연적으로 학교의 변화를 요청한다. 개인과 공동체의 웰빙을 추구하는 학교를 '삶을 위한 학교'라고 부르고 싶다. '삶을 위한'이라는 수식어는 덴마크 교육의 스승이라 불리는 그룬트비 Nikolai Grundtvig 의 『삶을 위한 학교』 철학에서 빌려온 것이다(시미즈 미츠루, 2014).

언제부터인가 학교는 '시험 보는 곳' 혹은 '시험 준비하는 곳'으로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 같다. 학교의 풍경을 바꾸려는 다양한 정책이 실시되고 다양한 학교 형태가 출현하면서 시도가 없지는 않지만 학년이 올라갈수록 시험이 끝난 후의 한국 학교의 풍경은 존재의 이유가 사라진 모습을 하고 있다. 한국 교육은 '경쟁'을 권장하는 '세속적 성공'으로서의 공부를 하기 원한다. 어떤 삶이 좋은 삶인지에 대하여 생각할 여유가 없는 사회. 아니, 질문 자체를 용인하지 않는 사회. 그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그런데 과연 학교만이 문제의 근원일까? 우리 사회는 배움에 대한 호기심과 즐거움을 잊은 있는 것 같다. 하지만 배움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교실의 학생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의 주체가 되어 사회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하는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지리 수업으로 구현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지리교육은 지역사회를 바꿀 수 있다. 지리교육은 학생과 밀접한 지역사회로 스케일을 한정하여 연구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설정하고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지역의 지속가능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수업을 통해 개인의 생존과 지역사회라는 공동체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다. 내가 추구하는 수업이 바로 지역 사회의 구성원들의 행복과 건강, 환경을 생각하는 웰빙 지리수업이다.

참고문헌 (参考文献)

OECD(2018): *Education 2030 : The Future of Education and Skills*, OECD/시미즈 미츠루(김경인·김형수 역)(清水 満 著, 김·ギョンイン&김·ヒョン스 訳)(2014): 『삶을 위한 학교 (생의ための学校)』, 녹색평론사 (ノクセクピョンロンサ), 296p.

OECD (2018) は, 「ウェルビーイング」(Well-being)을 지역社会構成員の幸福と健康, 環境を考える行動計画であると述べる。これに従うと地域社会の変化は, ウェルビーイングに寄与すると考える。すべての学生は, 全人的成長に基づいて自分の可能性を発揮し, 個人だけでなく, 共同体や地球のウェルビーイングに基づいた共同の未来を創造するために貢献すべきである。

ウェルビーイングとは, 学校の変化を必然的に求める。個人と共同体のウェルビーイングを追求する学校を「ライフのための学校」と呼びたい。「ライフのための」ということばは, 덴마크 교육의 師匠と呼ばれる 그룬트비 (Nikolai Grundtvig) 의 『人生のための学校』에서借りましたものである。

그룬트비によると, 試験は, 「若者が自分の経験の範囲ではなく, 他人の言葉を繰り返すことのみで答えることができる質問であり, 年長者が若者を悩ませること」と述べた。いつからか学校は「試験を行うところ」あるいは「試験を準備するところ」として普遍的に受け入れられている。学校の風景を変えようとする多様な政策が実施され, 様々な学校形態が出現し試みがあるものの, 学年が上がるほど試験が終わったあとの韓国の学校の風景は, 存在理由が消えた姿をしている。韓国の教育は「競争」を推奨する「世俗的成功」としての勉強をもとめている。どのようなライフが良いライフなのかについて考える余裕のない社会。その質問自体を認めない社会。それが今大韓民国の現実である。

ところで, 果たして学校だけが問題の源なのか。韓国社会は, 学びに対する好奇心と喜びを忘れてるようにみえる。しかし, 学びは, 私たちのライフを変えることができるものであると考える。そこで教室の学生たちは, 自分が住んでいる地域社会の主体となり, 社会問題を発掘し解決する過程に参与できるよう, 多様な活動を地理授業の中で具現できることに重点を置いた。

地理教育は, 地域社会を変えることができる。地理教育は, 学生と密接な地域社会にスケールを限定し, 研究し, 学習できるように設定し, 地域の持続可能性のために, 地域の持続可能に寄与しなければならない。このような授業を通じて, 個人の生存と地域社会という共同体の未来を共に作っていくことができる。筆者が追求する授業は, まさに地域社会の構成員の幸福と健康, 環境を考えるウェルビーイング地理授業である。